

투데이 칼럼

재난지원금, 슬기로운 소비가 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모범이 될 만큼 코로나바이러스-19를 잘 극복해내고 있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 수칙 준수로 2월 첫 국내 환자 발생 이후 4개월 만에 코로나19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으며 생활 방역 준수로 일상 생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경제가 문제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나가는 돈은 많은데, 장사는 안 되고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철저한 생활 방역 준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제 방역에 돌입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지난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급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270만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가구들도 11일부터 신청하면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장수군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장 영 수

장수군수

에 필요한 재원 약 22억 3,000만원에 대한 추정 예산을 편성해 이달 1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역화폐(장수사랑상품권)로 지급하고 있다.

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4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장수군민 중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하며 별도의 사용기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11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대원 모두를 대표해 한 사람이 수령가능하며 거

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겐 담당마을 직원이 출장 지급한다.

또 장수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장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해 4월 30일 기준 43억 6728만원을 판매했다.

음력 4월을 흔히 보릿고개라 불렀다. 목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아니하여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음력 4월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옛날 이 시기에 먹을 것을 아끼고 최소한의 식량과 소비로 가계를 이끌어 나갔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

해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에 직면한 만큼 착한 소비로 경제 선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이 필요한 때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한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 이 같은 경험을 '착한 소비'로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던 마음도 추스를 겸 가계의 달 5월을 맞아 재난지원금으로 가족들과 동네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선물을 구입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재난지원금을 쓰기 적소에 사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주민들의 현명하고 착한 소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홍콩서 '최루탄 맛' 아이스크림 등장



홍콩서 '최루탄 맛' 아이스크림 등장지난 4일(현지시간) 비디오 이미지 캡처 사진에 홍콩의 최루탄 맛 아이스크림이 소개되고 있다. 홍콩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는 지난 몇 달 동안 홍콩 경찰이 발사한 최루 가스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 후추를 이용, 이 맛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가게 주인은 "이 아이스크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탄력을 되찾으려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 표시"라고 말했다.

독자제언

자전거 음주운전은 괜찮다는 생각 버려야

따뜻한 봄을 맞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부쩍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사고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전거 음주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전거 음주 운전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전거 음주위험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제대로된 처벌기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보게되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모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의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력이 분산되고 반사신경이 둔화되어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자칫하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자동차와 다르게 자전거는 안전장치가 자전거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몸이 그대로 노

출되어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였을 때 양쪽 모두 큰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장비 및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및 안전거리 확보,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금지 등의 자전거 안전수칙 57지를 반드시 지켜서 타고, 자동차로 분류된다고 해도 모든 도로를 운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이동해야 한다.

자전거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운동 능력과 신체조정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 자전거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가 타도 괜찮을까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으니 음주를 했을 때는 자전거도 절대 타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칫 음주운전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 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타도록 해야겠다.

김주익인성경찰서신동지구대경사

사설

정부의 공공 일자리 156만개 제공

정부가 코로나 19 이후의 플랜을 발표했다. 이른바 '코로나 뉴딜 정책'이다. 코로나 사태로 고용 위기에 빠진 국가 경제를 위해 나선 것이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저번에는 50만개에서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거라고 했는데 이번의 발표는 그게 아니다. 무려 156만 개 제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을 위해서 티지컬 일자리 55만 개를 추가 하고 공무원 등 다른 일자리는 이달부터 4만8천 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일자리 방침이 조정되면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만큼 전북도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 다른 광역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에는 일자리 제공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북도의 발전이 소망스러운 때이다. 전북도는 제 몫을 지키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북의 몫을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문은 물론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지난날 반복해 말했던 바, 지역

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은 이유를 전북도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고장은 낱알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유감이다. 전북도는 제 몫 확보를 위해 끈질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 몫 찾기에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전북이 광주와 전남에 묻어 가거나 끌려가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이 전북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권이 크다고 해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전북은 독립된 지자체이지 광주와 전남에 연속된 게 아니다. 전북은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의 발전은 발전 같지가 않다. 전북도는 고장의 낙후와 관련하여 도민의 마음 고생이 심함을 알아야 한다. 전북이 대외적으로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장서서 안고 있는 것, 지역의 오랜 낙후는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나 전북도는 이번 제공의 일자리를 제대로 쟁겨야 한다.

발전 가속도를 내는 전북도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바람이다. 전북도는 발전 현안에 주목해야겠다. 주요 현안들을 계속 쟁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 서울발 코로나 사태로 다시 긴장 국면이지만 전북 지역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것처럼 경제 발전 분야에서도 우리 전북이 성공을 거두어야겠다. 최근 들어서 전북도가 도민에게 밝은 소식을 연달아 전해주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

전북도가 이렇듯 그 하나 하나의 발전은 도민 모두의 소망이다. 그런 점에서 군산 지역 조선기자체업체들의 신재생로의 업종 전환은 기대를 걸어볼직하다. 도지사와 조선기자체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조선기자체업 신재생 에너지 업종 전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진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것은 자생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판단되는 것이다.

여기 다시 말하거나 본보는 지난날 전북도에 지역 발전 추진을 여러 번 주문한 바 있다. 전북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것이다. 군산 쪽 영세 기업들이 힘들어했던 낱알이러서 말이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요지부동이라서 조선소 기동이 어렵다면 미련을 속히 접어야 한다고도 촉구했었다. 그리고 전기차 생산이 군산형 일자리로 정착했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했었다.

전북도가 발전 현안에 가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은 게 사실이다. 도지사 이하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는 이들은 그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자리도 약삭같이 덤벼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발전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계속 힘차게 달려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graphic advertisement for Jeonju Maeil newspaper.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sea with a sun or moon in the background. The text promotes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providing news and hope for the people, highlighting its long history and its role in supporting local development. It includes the slogan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the people who provide courage and hope) and mentions its 100th anniversary. The Jeonju Maeil logo is prominently displayed at the bottom right.